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보도자료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보도시점 바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2026. 11. 9.(월)

한국수자원공사, ‘울산 사연댐 안전성강화사업’ 본격 착공

- 11월 9일 착공, 2030년까지 수문 3문 및 취수탑 신설 완료 목표
- 기후에너지환경부·울산광역시와 협력해 노후 댐 안전 확보 및 세계유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광역시와 함께 노후 수자원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연댐 안전성강화사업’을 11월 9일 본격 착공한다.

지난 1965년 준공된 사연댐은 60여 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로,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와 지진 등 복합 재난에 대비한 시설 보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액 국비 총 809억 원을 투입해 댐 안전성 확보와 문화유산 보존을 동시에 추진한다.

국보 반구대 암각화는 사연댐 만수위(해발 60m)보다 낮은 해발 53m에 위치하여 집중호우 때마다 물에 잠기는 문제가 반복 되어왔다. 이번 사업은 침수 요인을 줄여 세계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원형 보존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자연월류식 여수로 높이를 해발 60m에서 47m로 낮추고 폭 15m, 높이 7m 규모의 수문 3문을 신설한다. 수문이 설치되면 홍수기에도 선제적이고 탄력적인 방류를 통해 댐 수위를 암각화 위치 아래인 해발 53m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아울러 신규 취수탑과 연결 관로를 구축해 노후 시설을 대체하면서도, 울

산 지역에 대한 먹는 물과 공업용수 공급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사업은 11월 9일 본공사에 착수해 여수로 굴착과 수문 제작·설치, 취수시설 구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오는 2030년 전체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은 “사연댐 안전성강화사업은 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유산인 반구대 암각화의 오랜 침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울산 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과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1매(별첨). 끝.

담당 부서	수자원개발처 수자원건설부	책임자	부 장	강동원 (042-629-3150)
		담당자	차 장	김민철 (042-629-315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관련 사진**



[사진] 사업 조감도. 사연댐 안전성강화사업은 11월 9일 본격 착공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광역시와 함께 노후 수자원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세계유산인 반구대 암각화의 침수 예방을 위해 폭 15m, 높이 7m 규모의 수문 3문을 신설한다. 이 밖에도 신규 취수탑과 연결 관로를 구축해 노후 시설을 대체하면서도, 울산 지역에 대한 먹는 물과 공업용수 공급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